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59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23일
4.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II.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조 6,796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5조 8,139억 1천 8백만원
 대비해 2조 8,656억 9천 2백만원(8.0%)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조 8,156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 6,174억 4천 2백만원(10.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조 8,639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2억 5천만원(2.1%) 증가하였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8,679,610	35,813,918	2,865,692	8.0
일반회계	26,815,641	24,198,199	2,617,442	10.8
특별회계	11,863,969	11,615,719	248,250	2.1

-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76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099억 9백만원 대비해
 177억 1천 1백만원(3.5%) 증가하였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18,320) 527,620	(×17,821) 509,909	(×498) 17,711	3.5%
일반회계	495,299	483,830	11,469	2.4%
도시개발특별회계	26,079	26,079	-	-
균형발전특별회계	6,242	-	6,242	-

※ (X) : 국고보조금

3.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 세입예산은 당초 583억 5천 1백만원에서 4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58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억 2천만원이 감액되고,
라이스랩 운영 1억원이 순감하는 등
총 4건에서 5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 10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총 21개 사업에서
177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 34억 5천 9백만원,
서울시 핀테크 랩 설립 및 운영사업 22억 4천만원,
인베스트서울센터(ISC) 조성(신규) 16억 2천 2백만원,
패션플랫폼 구축(신규)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 1천 2백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서 114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관악창업센터 조성(신규) 51억 2천 5백만원,
로봇과학관 건립사업 11억원 1천 7백만원 등
총 2건에서 6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 예산

-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천만원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9백만원 증액되어, 당초 583억 5천 1백만원에서 4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588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입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합 계	9,365	8,866	499	
국고보조금	4,856	5,366	△5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807	5,227	△42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치구 참여사업 감소로 인한 감액
라이스랩 운영	0	100	△100	◦ 농식품부의 사업중단 통보로 국비 감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8	39	9	◦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및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1	0	1	◦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및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09	3,500	1,009	
지역공동체 일자리	4,509	3,500	1,009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및 인원 증가분 반영

- 국고보조금 감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치구 참여 감소(△4억 2천만원)와 리스랩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1억원)으로 인한 것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리스랩 운영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세입예산의 감추경에 따라 세출에서도 국비와 함께 시비를 포함해 각각 7억원, 2억원이 감추경되었음.
 - 이 밖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과 국비 확정 내시액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각각 9백만원과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참여기간 확대와 신규 일자리 증가¹⁾에 따른 것으로, 세입에서 국비 10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시비 5억 4백만원이 매칭되어²⁾ 총 15억 1천 2백만원이 증액하였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 개정 현황>

구분	개정전	개정후
사업기간	8개월(상·하반기 4개월)	10개월 이내 (2019년 하반기 6개월)
근로기간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1)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을 2019년 4월에 개정해 종전보다 사업기간과 근로기간을 확대하고 관광자원 활용 사업의 신설로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였음.

2)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되고 있음.

사업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역 자원 활용</td> <td>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td> </tr> <tr> <td>지역 기업 연계</td> <td>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td> </tr> <tr> <td>서민 생활 지원</td> <td>⑥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지원사업</td> </tr> <tr> <td>지역 공간 개선</td> <td>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td> </tr> </tbody> </table>	분야	주요내용	지역 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지역 기업 연계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서민 생활 지원	⑥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 공간 개선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역 자원 활용</td> <td>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td> </tr> <tr> <td>지역 기업 연계</td> <td>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td> </tr> <tr> <td>서민 생활 지원</td> <td>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td> </tr> <tr> <td>지역 공간 개선</td> <td>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td> </tr> </tbody> </table>	분야	주요내용	지역 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지역 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서민 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 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
	분야	주요내용																				
지역 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지역 기업 연계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서민 생활 지원	⑥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 공간 개선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																					
분야	주요내용																					
지역 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지역 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서민 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역 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활용사업																					
추진목표	25개 자치구 1,300명 (상·하반기 각 650명)	25개 자치구 1,341명 (신규 41명, 기존 555명 2개월 기간 연장)																				

- 이처럼 이번 세입예산 추경안은 세입 추계 오차나 사업 부진에 따른 불용 예산의 감추경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 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증감에 기인하고 있음.

2. 세출 예산

가. 개요

○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은 모두 21개 사업에서 177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34억 5천 9백만원,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22억 4천만원, 인베스트서울센터(ISC) 조성(신규) 16억 2천 2백만원, 패션플랫폼 구축(신규)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원 1천 2백만원 등이 총 16개 사업에서 128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7억원

로봇과학관 건립(일반→균특) 4억 5천만원

라이스랩 운영(순감) 2억원 등 3개 사업에서 13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4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관악창업센터 조성(신규) 51억 2천 5백만원, 로봇과학관 건립사업 11억 1천 7백만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62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계	(x9,365) 91,521	(x8,866) 80,052	(x499) 11,469
경 제 정 책 과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3,326	1,086	2,240
	서울형 R&D 지원	33,948	33,678	270
	로봇과학관 건립 (일반→균특)	0	450	△450
일 자 리 정 책 과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2,204	1,934	27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4,807) 8,368	(x5,227) 9,068	(x△420) △700
	지역공동체 일자리	(x4,509) 6,763	(x3,500) 5,251	(x1,009) 1,512
투 자 창 업 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19,513	19,013	500
	청년창업꿈터 운영	318	268	50
	서울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운영	816	0	816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 <신규>	1,622	0	1,622
도 시 농 업 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2,434	2,334	100
	라이스랩 운영	0	(x100) 200	(x△100) △200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신규>	80	0	80
거 점 성 장 추 진 단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7,876	4,417	3,459
	스마트앵커 조성	2,655	2,294	361
	패션플랫폼 구축 <신규>	1,500	0	1,500
농 업 기 술 센 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x1) 2	(x0) 1	(X1)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x48) 70	(x39) 58	(x9) 12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26	0	26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계	6,242	0	6,242
경제정책과	로봇과학관 건립(일반→균특)	1,117	0	1,117
투자창업과	관악창업센터 조성 <신규>	5,125	0	5,125

- 이 중 로봇과학관 건립은 2019년 일반회계 사업에서 신설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이 이관되면서 실시설계비 등 6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11억 1천 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사업이었으나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투자창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투자창업과에 증액하였음.
- 이밖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7억원)와 ‘라이스랩 운영’(△2억원)은 국비감액에 따른 감추경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15억 1천 2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1천2백만원)’은 국비가 증액되었음.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 서울시는 국내 핀테크산업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마포구 창업허브에 핀테크랩을 조성하고 2018년 4월에 개관하였음.

<서울시 핀테크랩 현황>

- 위치 : 서울 창업허브 별관 2층(마포구 백범로31길 21)
- 면적 : 총555㎡
- 구성
 - 창업기업 입주 공간: 14실(4인실 5, 6인실 7, 10인실 2)
 - 기타시설 : 공동창업실, 핀테크지원센터, 홍보관, 파트너스 운영실, 핀테크테스트룸, 회의실, 상담실 등
- 운영 : 서울시 경제정책과
 - 프로그램 운영지원 : 전문 수행기관(엘스톤 엑셀러레이터)

- 핀테크랩은 예비창업기업(Pre-BI)부터 성장기업(Post-BI)까지 성장단계별로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민간협력사와의 협력으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조성하고 기존의 핀테크랩도 이전시켜 통합·운영할 계획임.

- 2019년 예산 6억 8,600만원 중 제2핀테크랩 1단계 설립으로 5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 22억 4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임.

〈제2 핀테크랩 개요〉

- 위치 : 위워크 여의도점 4·5·8층(영등포구 의사당대로83 HP빌딩)
- 규모 : 1912.4㎡(전용면적 781.9㎡) x 3개 층
- 개관일 : '19. 11. 1.(10월 중 입주)
- 소요예산 : 2,376백만원(공간임대 및 리모델링)
- 공간 개요
 - 총 공간수 : 59개
 - 주요 기능 : 기업 사무실(54개), 외부 지원기관 멘토링 공간(1개), 교육 및 네트워크 전용공간(1개), 테스트 공간*(3개)
- 입주예정자수 : 400여명(최대 505명 입주 가능)
 - 기업 성장에 따른 추가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 확보

- 여의도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며 금융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산업이 연계된다면 금융중심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핀테크 관련 건강한 창업 인프라와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당초부터 금융과 관련성이 미흡한 창업허브에 조성된 핀테크랩을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 시설 조성 예산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이번 핀테크랩의 확대로 입주기업의 공간이 대폭 확장되면(14개→55개) 입주기업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선정·입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현재까지 핀테크랩을 서울시가 직영하였으나, 핀테크랩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의 도입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2) 서울형 R&D 지원

-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상용화 지원, 미세 먼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태양광 활용 기술 개발, 공공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형 R&D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단 위 사 업	2018년			2019년		
		계속	신규	예산 집행액	계속	신규	예산액
총 계		14	196	20,807	61	316	35,713
혁 신 형 R & D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	149	3,879	-	130	5,000
	서울혁신챌린지 개최	2	32	1,240	34	32	2,640
	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	-	-	-	-	20	1,000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	12	5,496	12	100	10,000
일 반 형 R & D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4	-	1,900	4	-	881

R & D 생태계 지원	서울시산학협력력 활성화 사업	-	1	270	1	-	270
	재외한인과학자 학술 포럼 개최 지원	-	-	50	-	-	50
스마트 시티 구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5	1	2,880	6	-	2,800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	-	1	2,000	1	-	2,000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3	-	1,500	3	-	-
거점 지역 R & D	홍릉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료 R&D	-	-	-	-	10	3,000
	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R&D	-	-	-	-	10	2,880
	G밸리 내 산업 간 융·복합 R&D	-	-	-	-	10	1,000
	동대문상권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	-	-	-	-	4	1,000
과제관리 /운영비	서울형 R&D 지원	-	-	1,547	-	-	3,036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	45	-	-	156

- 이 중 공공테스트베드는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구매 등으로 상용화와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시는 2019년을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 까지 총 1,500억원을 집중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공공테스트베드 지원계획>

지 표		단 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00개 1,500억	50개 100억	125개 200억	200개 300억	275개 400억	350개 500억
혁신기술 실증지원	기업수	개	500	50	75	100	125	150
	지원액	억 원	1,000	100	150	200	250	300
혁신 제품· 서비스 구매	기업수	개	500	-	50	100	150	200
	구매액	억 원	500	-	50	100	150	200

※ 구매목표는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총액

- 이에 따라 기업에게 전시, 기술시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시민 홍보와 정책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중에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추경 예산으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테스트베드 박람회 개요〉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참가자 : 혁신기술 보유기업,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시민
- 추진방법 : 용역수행
- 사업내용
 - 기업의 혁신제품 홍보 및 시 기관과의 대면기회 제공으로 공공구매 촉진, 펀드 지원 상담 및 매칭, 4차산업 부문 채용 연계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 시민들을 위한 VR, 드론, 로봇 등 혁신기술 체험존 및 이벤트 운영
 - 기업인 토론회, 전문가 포럼 개최 등으로 정책 확산 추진
- 예산 : 2억 7천만원

- 테스트베드 박람회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서울시 해당기관과의 대면기회 제공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행사에 불과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2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오해될 수 있음.

(3)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신규)

-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 센터(ISC)를 조성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16억 2천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현재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인 Invest KOREA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홍보, 투자 상담부터 기업설립과 경영 애로사항 해결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비수도권의 국가 산업단지와 특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부지제공 중심의 제조업 유치 방식에 주력하고 있어 서울시의 산업적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ISC센터를 신설해 서울시의 산업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 맞춤형 외국인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 ‘인베스트서울 조성 계획’(2019.5.31)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유체에 대한 정책적 기능(제도정비·사후관리·플랫폼관리)을 담당하고, 센터는 투자유치 전 과정에 대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능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인베스트서울 센터 구성(안)>



※ 외주서비스 : 투자종합정보(2명), 1:1 서비스대행(10명), 정착서비스(5명) 별도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조직 신설없이 투자창업과의 2개팀(투자유치팀·투자환경개선팀)으로 ‘투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인력(8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주서비스로 일부 보완할 예정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이 현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운영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함.
-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 투자자와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인베스트서울 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인베스트서울이라는 명칭은 Invest KOREA의 하위 조직인 것처럼 외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센터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투자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나 전담기구의 시설 조성비가 추경으로 편성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편,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을 통한 시설 조성에 앞서 센터의 기능 조정과 인력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4) 관악 창업센터 조성(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 서울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자리와 자족기능이 취약한 관악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 창업센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관악 창업센터 추진 경위>

- 관악창업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 시행 : 2018.11~2019.5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적정) : 5. 2
- 5월 수시 투자심사 개최(조건부 적정) : 5.14
 - 조건내용 : 연차별 투자계획에 부합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조치계획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부합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조치('19.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행자위) : 6.18 예정

- 관악구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발전은 취약하지만 20~30대 인구 비율이 38.9%(서울시 평균 30.7%)로 높고, 창업수요 또한 많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 지역생활권역별 창업수요>3)

(대상 : 20~64세, 단위 : 명, 기준일 : 2017.12월말)

구 분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4)	동남권
경제활동 가능인구	6,874,087	360,118	2,143,490	803,492	2,168,726	1,398,261
초기창업 활동인구	460,564 (100%)	24,128 (5.24%)	143,614 (31.18%)	53,834 (11.69%)	145,305 (31.55%)	93,683 (20.34%)

* 경제활동가능인구 :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와 실업자

** 초기창업활동인구 : 18세~64세 중 사업을 소유 및 경영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이 42개월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

- 반면, 타 지역에 비해 창업지원시설이 부족하며, 사업대상지인 관악구의 경우 일반 창업시설이 2개소(서울대 창업보육센터와 민간 R&D 센터)에 불과한 실정임.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기준일 : 2019.1월)

구 분	市 전체	서남권	관악구	위치
계	80 (100%)	11 (13.75%)	2 (2.5%)	
서울시	44	6	0	
공공기관	6	1	0	
대학	20	1	1	
민간	10	3	1	

3) GEM 글로벌가업가정신연구, 2016/ 17 글로벌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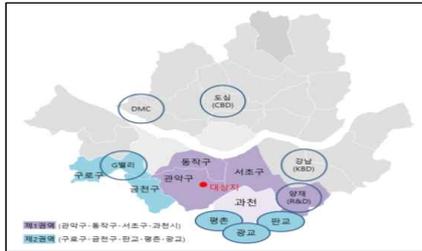
4)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이에 서울시는 주변 대학의 우수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ICT 융합분야의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센터를 관악구에 건립하고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등 50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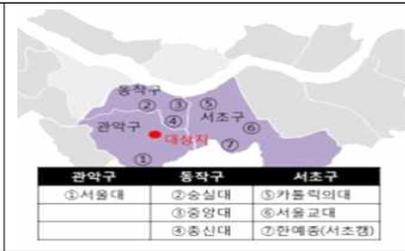
- 입주대상은 창업 3년~7년 미만의 ICT 융합분야이며 서울대, 숭실대 등 인근 대학과 민간 창업시설의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임.

<관악 창업센터 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로 545(관악구 봉천동 1662-7)
- 규모 : 부지 327.4㎡, 연면적 993.86㎡(지하1층 / 지상5층)
- 입지현황



<관악 창업센터 조성위치>



<서남권 대학과 인접>

- 층별구성 계획

층 별		용 도	
5층	162.07㎡	창 업 보육공간	10인실 이하 창업보육공간 (14개 내외 기업 입주)
4층	162.07㎡		
3층	162.07㎡		
2층	162.07㎡	개 방 형 정보교류 공 간	창업희망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형 창업 공간 휴게, 사색, 오락, 공용키친, 자유토론, 회의 등
1층	162.07㎡		
지1	183.0㎡	회 의 교육공간 (기 타)	교육, 컨설팅, 회의, 세미나, 창고

- 관악 창업센터의 조성은 여러 대학교가 소재해 있고 지역내 창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시설이 전무한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심의 이후에도 건물 매입을 위한 협상과 감정평가, 계약, 소유권이전, 안전진단 설계, 시공 등의 후속절차를 고려할 때, 2020년 9월경에야 센터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시됨.

(5)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 올해로 8회째인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를 통해 서울 도시농업의 비전 제시와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자치구와 공동개최하고 있음.
- 개최지로 선정된 자치구는 박람회 예산으로 1억원 이상 편성해야 하며, 민·관으로 구성된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2020년 개최되는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공동 개최자로 중랑구가 선정되면서 겨울작물 식재 등 준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1억원을 편성하였음.

-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박람회 전시작물 준비 2,560만원,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 1,440만원,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6,000만원임.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일 시 : 2020년 5월 하순 예정(4일간)
- 장 소 : 중랑구 중랑천 고수부지
- 주요내용
 - 개막식, 공모전
 - 도시농업관련 전시·체험, 국제컨퍼런스, 부대행사
 - 서울 도시농업 주제관 운영 등
- 공동주최 : 서울시, 중랑구
- 사 업 비 : 580백만원(시비 480, 구비 100)

- 박람회 개최 직전년도부터 전시작물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전시작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과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사업비는 내실있는 박람회 개최와 실행계획 수립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해당 사업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7)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신규)

-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은 지하철 유휴공간 내에 ICT⁵⁾, BT⁶⁾ 등이 융합된 첨단농업 플랫폼을 조성하여 미래형 도시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미래농업플랫폼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도시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성장 가능성⁷⁾이 높은 스마트 팜⁸⁾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 수출을 도모하고자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임.
 - 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해 ▶1단계 도시형 스마트 팜 시범운영, ▶2단계 미래형 스마트 팜 플랫폼 구축, ▶3단계 스마트 팜 올인원 모델 정립의 총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답십리역에 스마트 팜을 오픈하였음.

5)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말함.

6) BT(Bio Technology) :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거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생명공학 기술을 말함.

7) 실제 스마트 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농림부 자료를 보면, 스마트 팜으로 딸기 농사를 지은 10개 시범 농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생산성은 22.7% 늘었고, 노동력과 생산 비용은 각각 38.8%와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8) 스마트팜(Smart Farm) : ICT를 농업 기술에 접목하여 자동 원격으로 농작물·과일·가축 따위를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농장을 말하며,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생육 조건에 부합하는 온습도, 일사량, 냉난방 따위를 조절하고 물을 공급하는 구조임.(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미래형 스마트 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6호선 신당역 유휴공간(3,075 m^2)을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한 것임.

<지하철 내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 사업기간 : 2019. 5 ~ 2022. 6
- 장 소 : 6호선 신당역 유휴공간(서울시 중구 흥인동 162-1)
- 규 모 : 총 3,075 m^2
- 소요예산 : 10,292백만원(서울시 1,375, 민간자본 8,917)
- 조성내용 : 스마트팜(수직농장, 아쿠아포닉스 등), 홍보·체험관 등
- 설치 및 운영방안 : 운영기획 및 지원(서울시),

도시농업 플랫폼 공동운영(서울교통공사, 민간업체)



-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하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을 조성할 경우 신규 수익원 창출과 상가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4차 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CD 혁신지구내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

- 올해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총사업비는 44억 1,657만원으로 민간위탁금 22억 4,434만원, 임차료 12억 4,270만원, 시설비 9억 2,953만원임.
-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34억 5,891만원이 증액된 78억 7,548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증액내역별로 살펴보면 임차료 8억 5,891만원(5개월), 시설비 25억원, 기구 및 집기 취득비 1억원임.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875,482	(x-) 4,416,572	(x-) 3,458,910
사무관리비	(x-) 2,101,610	(x-) 1,242,700	(x-) 858,910
민간위탁금	(x-) 2,244,342	(x-) 2,244,342	(x-) 0
시설비	(x-) 3,429,530	(x-) 929,530	(x-) 2,5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x-) 100,000	(x-) 0	(x-) 100,000

○ 이는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반영하여 8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4곳을 임차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것임.

- 추경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혁신허브 공간인 한국교총회관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는 한편, 하이브랜드 빌딩과 희경재단 빌딩 등 민간건물을 신규로 임차하고, 서울시 소유인 품질시험소 현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임(추경안은 희경재단과 품질시험소가 대상임).

<혁신허브 추가공간 시설물 현황>

한국교총회관 추가 임차	하이브랜드 빌딩 임차
 <p>◦소 재 지 : 서초구 태봉로 114 ◦임차면적 : 500㎡(6층), 기존 임차 2,900㎡ ◦소요예산 : 491백만원(10개 기업 입주 예정)</p>	 <p>◦소 재 지 : 서초구 매현로 16 ◦임차면적 : 2,900㎡(12,13층) ◦소요예산 : 491백만원(25개 기업 입주 예정)</p>
희경재단 빌딩 임차	품질시험소 별관 개보수
 <p>◦소 재 지 : 서초구 매현로 8길 47 ◦임차면적 : 2,972㎡(지하1층~지상4층, 전층) ◦소요예산 : 2,647백만원(30개 기업 입주 예정)</p>	 <p>◦소 재 지 : 서초구 태봉로 108 ◦임차면적 : 500㎡(6층), 기존 임차 2,900㎡ ◦소요예산 : 1,186백만원(15개 기업 입주 예정)</p>

-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국내 타 지역의 집중투자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규모화와 집적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실제로 양재R&CD 혁신허브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매출액은 649억원으로 입주시점의 387억원 대비 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주사 노동자는 총 216명으로 입주시점의 130명 대비 66% 증가했음.
-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과 함께 증가되는 공유재산 위탁업무를 기존 수탁 기관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하였음.
- 그러나 하이브랜드 임차 시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약 15억원)를 포함해 관리인력 증원과 시설운영비 등 일부 부족한 위탁사업비(1억 3,300만원)를 모두 SBA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는 의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전용·변경 등의 적법한 사업내용 변경 절차 없이 사업부서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품질시험소 별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과 같은 도시계획 용역 사업은 소관 실·국인 도시계획국 등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품질시험소 신축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로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 기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9) 스마트앵커 조성

- 스마트앵커 조성은 ICT 기반의 현대화된 작업 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도심 제조업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임.
-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향후에는 연차별로 4~6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개의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시설 한 곳당 160억원씩 총 3,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이에 서울시가 직접 사업 대상지를 검증·확정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스마트앵커 신규사업 후보지 예비조사’와 ‘3차년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천 6백만원과 2차년도 사업대상지 협동화 사업 보조금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금까지 스마트앵커 신규 후보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발굴했으며, 이로 인해 부지 선정 후 실제 사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스마트앵커 시설 사업대상지 현황>

중랑 봉제	성동 수제화	중구 인쇄	구로 기계금속
			
상봉동 110-38,39	성수동 2가 277-34	여관동 52-10외	고척동 100
부지 : 1,568㎡ (지상6, 지하4층)	부지 : 559㎡ (지상7, 지하2층)	부지 : 1,200㎡ (지상12, 지하5층)	부지 : 3,516㎡
사업비 : 182억원	사업비 : 163억원	사업비 : 312억원	-
토지보상절차 진행	설계 공모완료	위탁개발MOU체결	산업실태조사완료
위탁자 선정 준비중	기본/실사설계 착수	중앙투자심사 예정	기본계획수립
'17.12. 선정			'18.10. 선정

도봉 양말	마포 디자인·출판	구로세무서 기계·금속	성수 변전소 수제화	개봉동 기계·금속
				
창동 777	성산동 370	문래동 1가 23-1	성수동 2가 300-20	개봉동 222번지
부 지 : 3,000㎡	부 지 : 1,568㎡	부 지 : 3,119㎡	부 지 : 3,541㎡	부 지 : 1,518㎡
-	-	구로세무서 신규이전 부지와 자산교환 추진	변전소, 스마트앵커, 오피스 복합개발	준공업지역 이적지
획지 확정 후 실태조사 예정	산업실태조사('19.6~) 기본계획수립('19.7~)	세무서 이전('22.6) 실태조사(~'22.9)	서울교통공사 실무협의 예정('19.6~)	건립중 ('20.7 준공 예정)
'19.3. 선정		사업대상 후보지(시 자체발굴)로 타당성 검토 용역 후 최종선정예정		

- 이는 스마트앵커 신규 조성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장기화와 포기·무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서의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후보지 3곳⁹⁾의 예비조사 사업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후보지 중 한 곳인 성수변전소의 경우 1차년도 성동 수제화 지역에 포함되는 곳이므로 기존 용역 내용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복된 대상지는 기존 수행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10) 패션 플랫폼 구축(신규)

- 패션 플랫폼 구축은 매출 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과 IT를 접목하여 동대문상권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 실제로 동대문 패션상권은 국내 의류 매출의 17%(약 15조), 수출의 21%(30억 달러), 고용의 26%(18만명)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의류 시장임.

9) 해당 용역의 예비 후보지는 성수변전소(성동구), 구로세무서(영등포구), 개봉동 임대산업시설(구로구)로 준공업지역내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용지임.

- 그러나 사드·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2010년 중반 대비 매출은 30~50% 감소, 지난해 대비 상권 공실률은 34%까지 증가하는 등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음.
- 이에 서울시는 스타일 추천 플랫폼인 ‘마이 스타일 랩’(My Style Lab)을 도입하고, 동대문 상권제품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V-커머스’를 조성하고자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동대문 ‘패션 플랫폼’ 추진개요>

- 사 업 명 : 마이스타일랩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12월 개장 예정
- 장 소 : DDP 디자인장터(예정)
- 규 모 : 115.5 m^2
- 소요예산 : 710백만원
- 사업내용
 - 동대문 패션상권 제품(모자, 의류, 신발) 등 통해 맞춤형 전문 스타일추천 제안
 - 스타일추천 후 소비자 구매 유도, 동대문 상권제품 판로개척 도모

- 사 업 명 : V-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 8월 말 개장 예정
- 장 소 : 동대문 DDP패션몰 4층(예정)
- 규 모 : 330 m^2
- 소요예산 : 790백만원
- 사업내용
 - 동대문 상권제품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 위한 'V-커머스' 시행 인프라 조성
 - 시설구축 후, 상권제품 이슈화 및 운영활성화 위해 왕흥 초청 등 진행

- 침해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과 같은 사업이 ‘DDP 패션몰(서울시설공단 위탁 운영)’에서 2곳의 스튜디오(패션몰 상인만 이용)와 바이어 라운지(동대문 상권 상인)를 통해서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단에 따르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상인은 일평균 4~5명 정도이고, 평균 사용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노출의 부작용으로 디자인과 원단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해당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방송 이용을 꺼리는 상황임.
 - 또한, 동대문 상권이 갖고 있는 빠른 주문-생산-공급시스템 장점보다는 ‘소매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두는 문제도 있음.
- 다만, 사유재산인 ‘DDP 패션몰’의 정상화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패션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하여 ‘DDP 패션몰’과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임.
- 따라서,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물론 패션전문가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대문 상권만의 차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워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